

광주 교통 인프라 현안 정부 긴축재정에 '비상'

도로·철도 등 신규사업에 15조원 국가계획 반영·국비 확보에 성패 정부협조 절실한데 '야당 도시' 한계 민생토론회 일정 조차 안 잡혀 지역 의원 국토위에 정준호 1명 뿐

민선 8기 들어 광주 미래 발전을 견인할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신규 사업이 역대급으로 몰리면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대구 달빛철도 등 시급히 진행해야 할 대형 인프라 사업만 9건 15조원 규모로,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역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주변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는 현 정부 들어 야당 도시로 분류된 탓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진행을 마친 '대통령 민생토론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 축소 방침을 밝힌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마저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상임위원회 1차 배정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초선인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만 '나홀로'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 안팎에선 애초 국토위 배정을 희망했던 광주 유일의 재선의원이자 대표적 진명계인 민형배 의원과 '행정 전문가'인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배치된 점이 뼈아프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철도 등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은 광주-대구 달빛 철도를 비롯한 복합소평물 관련 도시철도 신설, 미래차 국가산단 연결 광주산업선 신설,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전역 경유 노선 변경,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C 확장, 김제-광주 고속도로, 제3순환 고속도로망 건설 등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15조 971억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이들 사업은 각각 최소

7000억원에서 최대 4조 5000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대형 사업으로, 신속한 국비 지원이 없다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실제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총 4조 5158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며, 광주시와 대구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신속한 예산 배정을 통한 조기 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복합소평물 사업'은 관련 교통 인프라 조성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상무역-광주역 7km구간) 사업비로만 2030년까지 7000억원(국비 60%, 시비 40%)이 필요한 상태다.

늦어도 올해 내로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신속 승인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절차 신속 추진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교통난 등으로 복합소평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가 열악한 산업단지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미래차 국가산단 연결 광주산업선 신설 사업' 역시 윤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내년부터 2034년까지 국비 1조 800억원을 투입해 미래차산단-광주연구개발특구 27km 구간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국토부의 내년도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과 기재부의 2026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등 정부 부처의 협조부터 선행해야 한다.

올해부터 2035년까지 진행 예정인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사업'은 전액 민간투자 사업인데도, 국토부 협조 없이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광주시는 민간자본 1조 4000억원을 유치하고 광주역-송정역 14km 구간을 복선·지하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선 내년까지 국토부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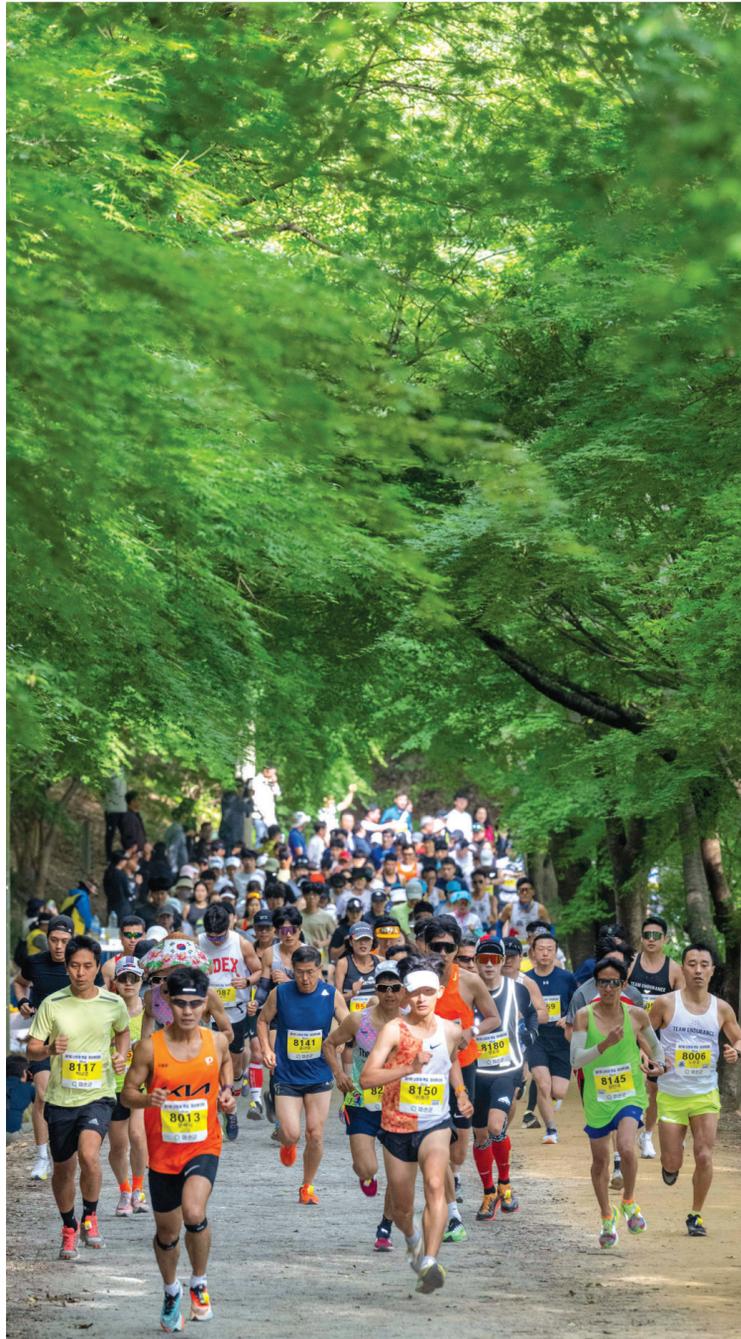
2030년까지 1조 5192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전역 경유 노선 변경 사업'도 국토부 협조를 얻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통과해야 하는 등 정부 부처의 문턱을 넘어서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2029년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C 확장 사업(총 사업비 7934억원·국비 50%·지방비 50%)'은 더딘 사업 추진 등으로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비 지원 상황 등이 요구되고 있다. <2면으로 계속>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숲 속의 마라톤 ... 상쾌한 질주



제9회 너릿재 옛길 마라톤 전국에서 700여명 참가 명품 숲길 코스 힘찬 레이스

전국 마라토너들이 남도의 초여름 신록을 만끽하며 뜨거운 질주를 펼쳤다.

광주일보가 주최한 '제9회 너릿재 옛길 마라톤 대회'가 2일 화순과 광주 동구를 잇는 너릿재 옛길에서 진행됐다. <관련기사 18·20면>

마라톤세상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화순군, 화순군의회, 광주동구청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광주·전남·전북은 물론 경남, 서울 등지에서 700명의 마라토너들이 참석해 명품 숲길을 달렸다.

이날 구북구 화순군수와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정형찬 화순군체육회 회장 등이 행사장을 찾아 마라토너들의 '여름 잔치'를 함께 즐겼다. 구 군수는 "전국에서 오신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 환영한다. 좋은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화순에서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꽃길길 음악 분수쇼도 보고 가시면 좋겠다"고 화순을 찾은 이들을 반겼다.

임 청장도 "너릿재는 화순이기도 하지만 광주 동구이기도 하다. 마라톤을 통해서 느끼는 환희, 행복 그리고 그 열정을 인생에서도 늘 느끼시기를 바란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대회에 참가한 이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참가자들은 셀레브(옛 소아리클럽리) 입구에서 너릿재 옛길 주차장 반환지 4km 코스를 왕복해 달리는 방식으로 8km, 16km, 24km 등 3개 부문에서 경쟁을 펼쳤다. 부문별 6명의 남녀우승자가 가려졌으며, '남자 2명·여자 1명'이 조를 이룬 단체전 경쟁도 펼쳐졌다.

화순에서 광주를 오가는 너릿재 옛길의 풍광과 정취를 간직한 대회 코스는 전국 마라토너들이 손에 꼽는 여름 코스 중 하나다. 여기에 최적의 환경에서 마라톤을 즐길 수 있도록 6월로 앞당겨 대회가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은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또 참가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급수대와 휴식 부스, 간이 세면장 등이 운영되고 곳곳에 의료인력이 배치되면서 명품 코스에 어울리는 명품 대회가 치러졌다.

한편 너릿재 옛길 마라톤대회는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옛 광주일보 3·1마라톤 코스의 일부 구간을 복원해 치르는 여름철 이색 마라톤 대회이자 너릿재 옛길을 알리는 무대에도 주목받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정호용 등 5·18 가해자 다시 법정 세우나 ▶6면 KIA 이의리·크로우 시즌 아웃 '비상' ▶19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설크림

